

Energy Efficiency



환경 경영

천연자원의 고갈, 이상기후 발생과 같은 심각한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해 교토의정서 체제 등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5년 12월 195개국 정부가 만장일치로 UN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기후체제에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범세계적인 '신기후체제'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통합환경관리법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시행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절감, 환경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흐름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은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절감함으로써 친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관련 정책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과 관련된 내부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와 환경을 위한 책임 있는 약속

신한금융그룹은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인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통해 그룹의 전사적인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룹사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정량적인 수치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통합녹색경영 시스템'으로 12개의 환경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외부 이해관계자의 환경정보공개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부서로 구성된 전사 환경-에너지경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영향 절감 및 에너지사용량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 금융권 최초로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이후 2016년 10월 신한은행은 국제표준화기구(ISO) 환경부문 인증인 ISO14001:2015을 획득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경영을 선도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최신 개정판인 ISO14001:2015 버전은 내부 환경경영 활동 개선 외에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파악 및 개선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환경부문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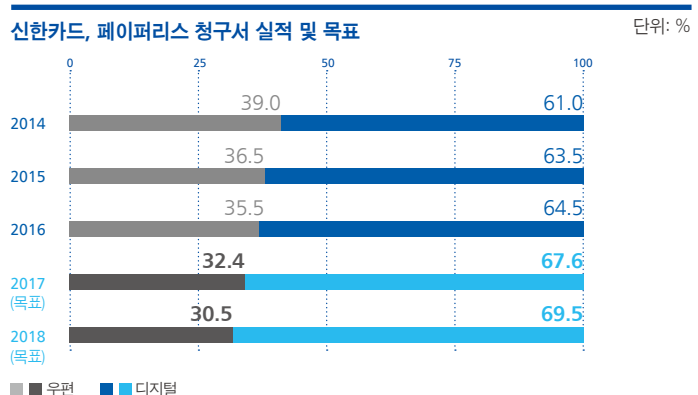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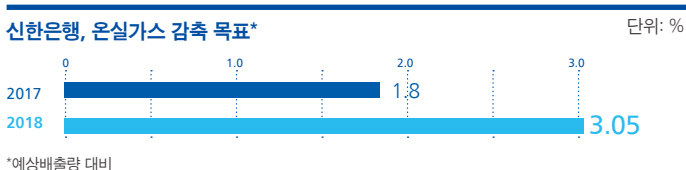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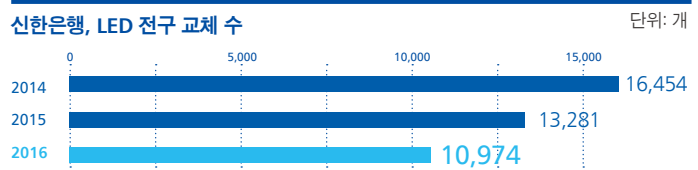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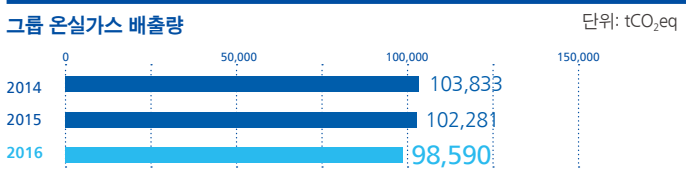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서 매년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 받는 신한은행은 감축활동을 이행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정부로부터 예상배출량 대비 16.5% 감축목표를 부여 받았으며,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감축활동으로 목표대비 약 20.4%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신한은행 본점과 대형 건물 그리고 영업점에서는 조명(10,974개)을 LED를 교체함으로써 온실가스를 1,103tCO₂eq를 감축하였으며, 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운영에 따른 냉난방 조절, 시간대별 소등, 공조 시스템 가동시설 조절 등을 통해 2016년 온실가스를 목표 대비 3.5%(1,294톤)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씨니뱅크, 디지털 키오스크, S-TB(신한 태블릿 브랜치) 등의 금융 서비스 및 종이 사용량 감축을 통해 2016년 총 477tCO₂eq 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했습니다.

한편 재해복구센터에서는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해 고효율 장비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 적정 온도 관리로 도시가스 사용을 전년대비 15tCO₂eq(9.9%) 감축을 달성하였으며, PUE(Power Usage Effectiveness)를 1.8로 관리하여 글로벌 데이터센터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환경경영 활동의 결과 '2016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정부포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그간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DJI 월드지수에 4년 연속으로 편입되었으며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되는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100대 기업에 5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자원 재활용

신한은행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업무용품과 사무용 PC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절감을 노력을 통해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금융 실천 불용 업무용품산 나눔' 행사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1,300여 점의 탁자, 의자, 책상을 정비하여 서울, 충북, 인천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40여 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9,000여 점의 사무가구를 기증하여 환경영향 절감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나눔PC'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에 매각 또는 사용하지 않는 10,325점의 모니터, 본체, 노트북 등 업무용PC를 재생하여 사회적 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환경 커뮤니케이션

신한은행은 임직원의 친환경 인식 제고와 환경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대내외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관부서 담당자에게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주요 국내외 현황과 이슈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장 및 경영진과 에너지 경영 검토사항을 공유하여 에너지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 외 별도 환경보고서를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환경정보공개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환경보고서 내 의무 및 자율 항목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자원 및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및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녹색구매 실적 등 정량 데이터뿐만 아니라 환경경영 추진을 위한 전략과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글로벌 환경 이니셔티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2006년부터 매년 기후변화 대응현황을 CDP에 보고하며 있으며, 2016 CDP코리아에서 탄소경영 최우수기업 5개사가 선정되는 탄소경영 아너스클럽에서 국내금융회사 최초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신한은행은 UNEP-FI* (유엔 환경금융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환경적 책임이행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 외에도 2015년에 '에너지 효율 지지를 위한 금융기관 공동 선언문'에 참여하였습니다.

* UNEP-FI :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기구. 금융기관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를 위해 1992년 창설



환경경영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정부의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출범한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에 금융상품 자문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제로 에너지빌딩 인증제 시행에 발맞춰 상용화 모델 개발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 주관 녹색금융포럼에 참석하여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평가지표 개선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관투자자, 주주들의 의사결정 시 고려되는 ESG부분의 환경성 평가 항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한 '신한데이터센터'



태양열 온수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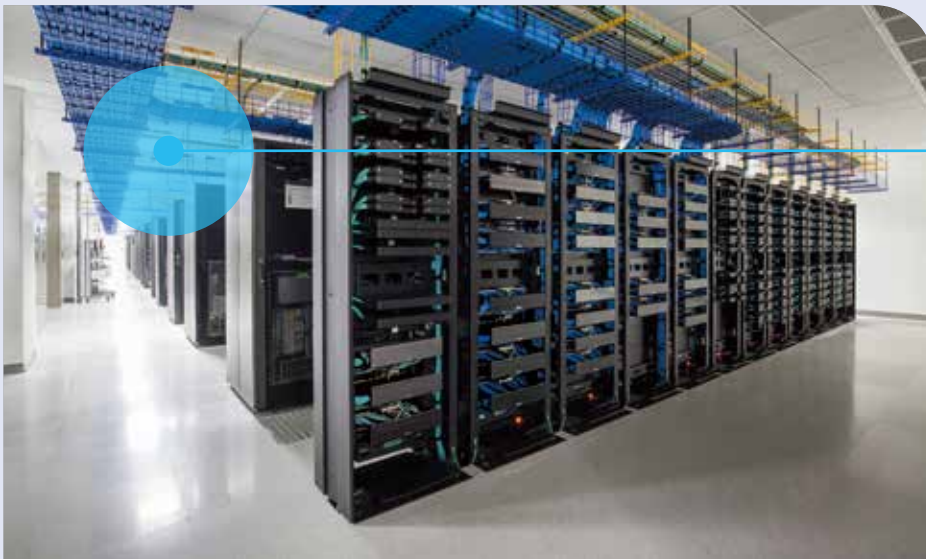
신한데이터센터 옥상에 태양열 설비(6,000Kcal 온수공급)를 설치하여 연간 2336.84Mcal의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설비인 BIPV(Building Intergrated Photo Voltaic)의 설치를 통해 연간 92,640kWh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빙축열 시스템

빙축열 도입을 통해 저렴한 심야 전력을 축열한 후 주간에 활용하여 연간 평균전력단가를 119원에서 89원으로 절약하여 연간 약 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

로비, 전산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대부분의 조명기구에 LED조명의 도입하여 연간 1,344,054kWh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신한데이터센터는 초기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목표로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도입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미국 친환경 건축물인증인 LEED 인증 Gold 등급과 국내 녹색건축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설비인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 Voltaic), 거치형 태양광 발전설비인 PV(Photo Voltaic), 태양열 온수설비 등을 설치하여 연간 20%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빗물 및 건물에 사용된 수돗물을 재활용하여 수자원 사용량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소비량 파악, 설비 최적 운전조건 분석, 에너지 절감 분석 시스템을 갖춘 데이터센터 빌딩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을 도입하였습니다. BEMS는 집계된 데이터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해 비효율적인 항목 운동을 합리화하며, 최적의 운전조건을 찾아내 에너지 절감 및 장비의 수명연장 효과를 창출합니다. 그 결과 신한데이터센터에 한 해 동안 총 330tCO₂eq (전년대비 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으며, PUE(Power Usage Effectiveness 전원사용효과, 일반데이터센터의 경우 2.0)를 1.45로 관리함으로써 최첨단 데이터센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